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중동 사태가 중국 경제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KIEP 북경사무소(jhpak@kiep.go.kr, Tel: 86-10-8497-2870)



## 차 례

1. 중동 사태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충격
2. 중동 사태가 중국 경제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3. 중국의 대응 전략
4. 평가 및 전망

## 주요 내용

-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전 세계 각국은 원자재 및 물류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으며, 석유 및 가스 공급난,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 및 운송비 증가에 직면
  - 국제 유가는 전쟁 전 60달러 후반에서 70달러 초반을 유지했으나, 전쟁 발발 직후 100달러를 넘어섬.
  -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친 운송 지연 및 비용 증가로 인한 에너지 및 일상 소비재 가격 상승은 소비 위축을 촉진해 경기 둔화 압력으로 작용
-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소비 위축이 중국의 수출 둔화를 초래하며, 중국 내 원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비용 상승과 가격 부진이 동시에 발생하는 '양측 압박(两头受挤)'에 직면
  - 수출이 중국의 GDP 성장 목표 달성에 있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동 사태가 중국의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위협은 글로벌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출 약화임.
  - 석유정제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은 원자재 및 연료 가격 부담이 커지는 반면 정부의 가격 규제로 제품 가격 인상은 어려워 수익성 압박이 불가피
- 중국은 원유 수입국 다변화와 육상 운송망 확대를 통해 중동 지역에 대한 원유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며, 석유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기 기반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 최근 수년간 중국은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석탄화학 산업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
  - 2025년 중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84.4%에 달했으며, 2026년에는 84.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2030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5%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력 중심 소비 구조를 강화하고자 함.
- 중동 사태가 중국의 경제 및 공급망에 미치는 충격은 중국의 △ 에너지 공급 다변화, △ 재생에너지 전략, △ 과거보다 낮아진 외부 에너지 의존도 덕분에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
  -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 신에너지차 보급률 상승, 석탄 생산능력의 유연한 보완 역할까지 더해져 중국 경제는 유가 충격에 대해 일정한 면역력을 보유했음
  - 주요국과 비교할 때 중국은 중동 사태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자급률 제고는 지속적인 노력 필요

## 1. 중동 사태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충격

■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표적 제거를 감행하며,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를 개시하고 이란과의 전쟁을 본격화함.

-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며, 이후 미국과 이란은 협상에 돌입하여 일정 부분 진전을 보이는 듯했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 대해 불만을 표명함과 동시에 대이란 공습이 개시됨.
- 개전 이후 이란 전역에서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3,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됨.<sup>1)</sup>
- 전쟁 39일째인 4월 7일 파키스탄의 중재로 양국은 극적으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함.

■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였고, 이란의 원유 공급처인 하르그섬에 대한 미국의 공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의 걸프협력회의(GCC) 핵심 에너지 시설 공격 등으로 유가가 급등함.

- 세계 원유·LNG 공급물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 전에는 하루에 약 135척이 통과했으나, 이란의 보복성 공격 위협에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에는 통과 선박이 한 자릿수로 감소
-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전쟁 발발 당일인 2월 28일에는 50척, 29일에는 3척, 3월 3일에는 0척으로 감소하였고,<sup>2)</sup> 이후 이란 외무부는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에 자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통과 선박은 여전히 제한적임.
  - 이란은 4월 7일 미국과의 휴전 발표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상선 운항에 개방하겠다고 했지만, 휴전 합의 이후에도 통과된 선박은 14척에 불과함.
- 대표적인 호르무즈 우회 송유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과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 원유 파이프라인이나, 이 두 가지 우회 수송로의 우회 수송 능력은 호르무즈 해협 수송 능력에 현저히 못 미침.
  -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통과량은 평상시 하루 약 1,500만 배럴 수준인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파이프라인과 UAE 아부다비 파이프라인을 통한 우회 수송 능력은 하루 약 470만 배럴 정도에 불과함.

1) "More than 3,000 Iranians killed during war, medical body says"(2026. 4. 9.), *Reuters*.

2) "UKMTO reports 3 maritime incidents in Strait of Hormuz"(2026. 4. 19.), *Xinhua*.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통항 제한), 이란의 원유 공급처인 하르그섬 군사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 이란의 걸프협력회의(GCC) 핵심 에너지 시설 공격(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 타누라 정유시설, UAE의 루와이스 정유시설,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 처리시설 등)으로 이란 전쟁 전 대비 유가가 급등함.
- 미국의 이란 공격 시점인 2월 28일 전 국제 유가는 60달러 후반에서 70달러 초반을 유지했으나, 전쟁 발발 직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3월에 브렌트유와 WTI 모두 100달러를 넘어섬. 4월 7일 2주간의 휴전 합의 이후 90달러대로 떨어짐(표 1 참고).

표 1. 중동 사태 전후 국제 유가 추이

유종	2/27	3/7	3/12	3/21	3/30	4/6	4/8
브렌트유	72.87	92.67	100.46	106.41	107.39	109.77	94.75
서부텍사스원유 (WTI)	67.02	95.90	95.73	98.23	102.88	112.41	94.41

자료: oilprice.com(검색일: 2026. 4. 11.).

■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상승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원자재 및 물류 전반에 연쇄적 공급 차질을 초래

- 원재료 수급 불안과 비용 부담 증가는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 및 운송비 증가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항공·해운·물류,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 등에서 생산 축소 또는 가동 중단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sup>3)</sup>
-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석유 및 가스 공급난으로 인해 에너지 비상 대응 체제가 가동되는 등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이 확대됨.<sup>4)</sup>
-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친 운송 지연 및 비용 증가로 인한 에너지 및 일상 소비재 가격 상승은 소비 위축을 촉진해 경기 둔화 압력으로 작용

3) 「美以伊战事正在给全球经济带来深刻影响」(2026. 4. 10.), 『环球网』.

4) 「美以伊冲突持续外溢 东南亚能源安全承压」(2026. 4. 27.), 『光明网』.

## 2. 중동 사태가 중국 경제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 가. 중국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은 이란산 저가 원유 수입 중단과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재개로 러시아 잔여 생산 여력 추가 흡수가 어려워지면서 석유 공급 차질에 직면<sup>5)</sup>

- 2021년 중-이 25년 협력협정 체결(中伊全面合作计划) 이후 이란은 본격적으로 중국의 저가 에너지 공급원으로 부상<sup>6)</sup>(그림 1 참고)
  - 해당 협정에서 중국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조건으로 총 4,000억 달러 규모의 석유를 공급받는 대신, 이란의 인프라에 투자하고 안보 협력 추진을 약속
  - 2025년 말 기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규모는 하루 약 140만 배럴에 달해 전체 원유 수입의 약 13%를 차지했으며, 이는 이란 전체 석유 수출의 약 80~90%에 해당<sup>7)</sup>
- 이란산 원유는 미국의 제재 회피를 위해 중국의 대형 국유 석유기업이 아니라 주로 소규모 민영 지방 정유기업(地炼企业)에 판매되었으며,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경우가 다수
  - 이란 전쟁 이후 중국의 저가 원유 공급원 상실에 따라, 중국 지방 정유기업의 높은 대체 조달 비용 감수가 불가피해짐.
- 지난 3월 5일 미국 재무부가 인도 기업에 대해 30일간의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구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일반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중국이 러시아의 잔여 생산 여력을 추가로 흡수하는 것 또한 어려워짐.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운송 해상 리스크는 중국의 해상 운송비·보험료 상승 및 화물 적체 현상을 야기하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을 초래

- 2020년 이후 중국의 원유 수입원이 점진적으로 다변화되어 왔으나, 걸프 지역으로부터의 공급은 여전히 전체 수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그림 1 참고)
  -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원유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약 절반은 중동에서 공급
-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 추정치(에너지 수입 총량 대비 비율)를 살펴보면, 원유 수입 시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는 43.1%로 아시아 주변국(일본 65.1%, 한국 6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그림 2 참고)

5) 「深刻认识和综合整治'内卷式'竞争」(2025. 6. 29.), 『求是网』.

6) 「冲刺4万亿目标! 中伊签署25年合作协议, 已有1780万吨伊原油抵华」(2021. 3. 27.), 『新浪财经』.

7) "What the war in Iran means for China"(2026. 3. 17.), *Bruegel*.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운송 해상 리스크에 대응한 중국의 자체 완충 능력은 상당한 수준
- 중국의 전략 비축유와 상업용 석유 재고를 합하면 약 13억~14억 배럴에 달하며, 이는 약 4개월간의 수입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이고, 러시아가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석유 역시 중국에 추가적인 공급원 다변화를 제공

그림 1. 중국 주요 원유 수입원 구조 변화 (2020~25년)

(단위: %)



자료: 中国海关总署.

그림 2. 아시아 주요국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

(단위: %)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나. 중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제 유가 상승은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을 견인하여 중국의 수입 인플레이션(輸入性通脹) 압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기여<sup>8)</sup>

-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경우,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3%,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 이상으로 반등할 수 있음.
-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경우, 중국의 연간 수입 비용은 약 200억~280억 달러(약 2,000억~2,800억 위안) 증가
- 국제 유가 상승은 소비 위축을 야기하는 반면<sup>9)</sup>, 일정 부분 중국 디플레이션의 자기강화 메커니즘을 완화하고, 투자 및 소비 의욕과 능력을 개선하기도 함.
- 2023~25년 중국에서는 구조적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저물가-저이윤-저소득-저소비의 악순환이 형성 되었는데, 수입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은 디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완화

8) 「油价上涨对中国经济的影响与对策」(2026. 4. 12.), 『宏观经济』.

9) 「从“旧叙事”到“新均衡”——输入型涨价如何激活中国再通胀?」(2026. 4. 15.), 『新浪财经』.

- 다만, 수입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인 수요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다시 디플레이션 악순환으로 회귀하거나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함.

■ 유가 상승은 업스트림 에너지 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해 중국 에너지 공급 능력과 투자 유인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에너지 안보 충격의 대응 탄력성 제고<sup>10)</sup>

- 유가 상승은 석유 채굴, 유전 서비스, 석탄, 석탄화학 등 전통 에너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산업에 원유 가격 상승은 비용 증가 요인이지만, 석유채굴 산업에는 최종 판매가격 상승을 의미
  - 석유채굴 기업의 비용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고정적인 성격이 강하며, 2025년 연간보고서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중국해양석유총공사 등 중국 3대 국영 석유기업의 배럴 당 채굴 비용이 각각 약 32.9달러, 34.0달러, 27.9달러 수준
- 유가 상승은 전략적 석유 비축,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인프라, 국내 탐사 및 개발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

■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소비 위축은 중국의 주요 수출국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중국의 수출 둔화를 초래<sup>11)</sup>

- 중국이 GDP 성장 목표 달성에 있어 여전히 수출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중동 사태가 중국의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위협은 글로벌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출 약화임.
-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는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 심화 및 기업 이윤 감소를 야기하며, 기업의 수익성 약화로 인한 투자 축소는 중국 내수 부진에도 부정적인 영향
-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는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축소하며, 경상수지 적자 발생 가능성 또한 확대<sup>12)</sup>

■ 중국 내 원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비용 상승과 가격 부진이 동시에 발생하는 ‘양측 압박(两头受挤)’에 직면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해당 분야 선도국인 중국에 유리

- 교통운수, 항공·해운, 화학, 플라스틱, 화학섬유 등 중국 내 원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양측의 압박으로 인해 투자 능력과 투자 의욕 모두 저하<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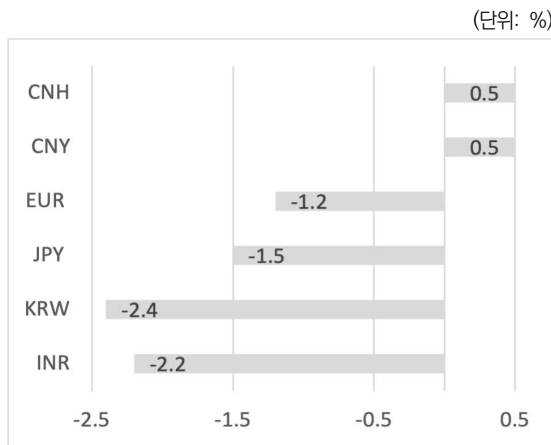
10) 「美伊冲突对中国产业链的影响——哪些受损?哪些受益?」(2026. 4. 27.), 『新浪财经』.  
 11) 「美以伊战事下中国能源体系、汽车及储能产业怎么走?惠誉评级给出核心判断」(2026. 4. 21.), 『证券时报』.  
 12) 「国际油价持续处于高位对中国经济有哪些影响,又该如何应对」(2026. 4. 17.), 『央广网』.  
 13) 「油价上涨对中国经济的影响与对策」(2026. 4. 12.), 『宏观经济』.

- 중국의 유가 민감도에 관한 표준 모형에 따르면, 유가가 25% 상승할 경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5% 감소
- 중동에 대한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경제의 전기화(electrification) 가속화 추세는 신에너지 분야에서 산업적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에 유리
-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전기차, 초고압 송전(UHV), 에너지 절감 장비 등 녹색산업의 중국 내수 및 수출 수요 모두 증가 예상

■ 위안화는 중동 사태에 따른 환율 변동 충격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유가 상승 및 달러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해 위안화 결제 규모 확대<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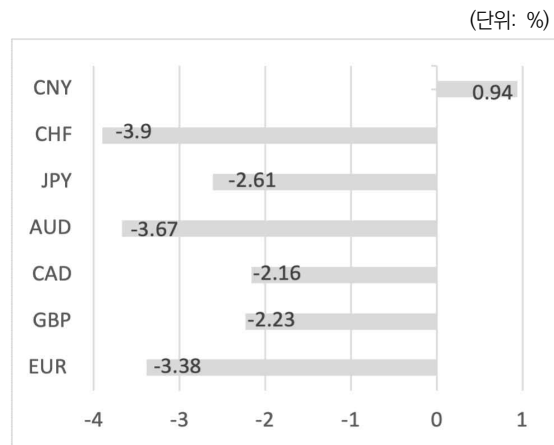
- 3월 중순 기준 위안화 환율은 이미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위안화(CNY)와 역외 위안화(CNH)는 주요국 통화 가운데 유일하게 달러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그림 3 및 그림 4 참고)
- 유가 상승으로 인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산유국과 중국의 협력이 심화되고, 석유 무역에서 달러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위안화 결제 규모가 확대됨.
- 이란의 원유 위안화 결제 허용을 계기로, 에너지 결제 통화로서 위안화의 위상이 부각되며 '페트로 위안(원유의 위안화 거래)' 논의가 재점화

그림 3. 이란 전쟁 이후 달러 대비 주요국의 통화 수익률(2026. 2. 27.~4. 8.)



자료: Bloomberg, ING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림 4. 중동 전쟁 이후 주요국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 변동폭



자료: IMF.

14) 「中东战争如何影响人民币汇率走势?贸易顺差波动增加变数」(2026. 4. 27.), 『中华网』.

## 다. 중국 각 산업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 ■ 석유정제산업은 정부의 가격 규제로 제품 가격을 충분히 인상하기 어려워 수익성 압박에 직면

- 원유를 원료로 하며 증류, 분해, 개질 등의 공정을 거쳐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제품과 일부 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산업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정유 공장 가동률 하락
- 4월 24일 기준 중국 주요 정유사의 원유 정제 설비 가동률은 68.9%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6주 연속 감소한 수치로, 전쟁 이전인 2월 27일 대비 누적 13.3%포인트 낮아진 수준
- 이번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임시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가동해 중국 내 정제유 가격 인상폭을 원가 상승폭보다 낮게 제한하고 있어, 정부의 정제유 가격 통제로 업계 수익성 압박이 심화<sup>15)</sup>
- 4월 24일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2월 말 대비 45.3% 상승했지만, 중국 내 휘발유 최고 소매 지도가 격은 21.4% 상승에 그쳤으며, 평균 정제 마진(정제유 판매가치와 원유 비용의 차이)은 톤당 -24.2 위안으로 2025년 평균인 879.1위안/톤을 크게 밑돌았음.<sup>16)</sup>

### ■ 석유화학산업은 원자재 및 연료 가격 부담이 커지는 반면 제품 가격 인상은 쉽지 않은 '양측 압박(两头受挤)'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전반적으로 업스트림보다 다운스트림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큼.

- 업스트림 부문은 주로 '3대 올레핀·3대 방향족(三烯三苯)' 등 기초 화학원료를 생산하고, 다운스트림 부문은 이를 바탕으로 중합 반응 등을 거쳐 플라스틱·고무·섬유·정밀화학 제품 등을 생산하는데, 기초 화학원료 생산은 원유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제 유가와 공급 변화에 민감
- 업스트림 부문은 정제 마진 개선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업스트림 기업은 비교적 가격 전가력이 높아 원유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신속히 반영 가능
- 에틸렌의 경우 4월 24일 기준 나프타 분해 기반 생산설비 가동률이 73.3%로, 2월 말 대비 15.3%포인트 하락(표 2 참고)
- 다운스트림 부문은 가격 협상력이 낮고 기업 분산도가 높아 원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하면서 역마진과 적자 발생
- 다운스트림 가공기업은 최종 소비시장과 가까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 다수 제품의 가격 상승폭이 업스트림 원재료보다 낮아 수익성이 크게 훼손
- 4월 24일 기준 폴리에틸렌 가격은 2월 27일 대비 27.8% 상승했으나, 상류 원료인 에틸렌 가격 상

15) 「国家发展改革委对油价临时调控 全国平均汽油、柴油每升少涨0.85元左右」(2026. 3. 23.), 『每日经济新闻』.

16) 「国家继续实施调控 今晚国内汽油价格每吨实际上调420元」(2026. 4. 7.), 『新京报』.

승률 51.5%에는 크게 못 미쳤으며, 같은 기간 에틸렌 기반 폴리에틸렌 생산의 매출 총이익률은 1.6%에서 -26.6%로 급락해 수익성 역전 현상이 뚜렷함.

**표 2. 중국 주요 기초 화학원료의 원유 기반 생산구조 및 설비가동률 하락 현황**

기초 화학원료	2025년 수입 의존도	2025년 원유 기반 비중	최근 설비가동률 변화 (2/27 → 4/24)
에틸렌	6.4%	68.4%	88.65% → 73.3% (나프타 분해)
프로필렌	3.4%	49.7%	72.2% → 65.5%
부타디엔	9.0%	원유 기반 주도	76.3% → 64.1%
순수 벤젠	17.0%	원유 기반 주도	78.9% → 69.5%
톨루엔	0.25%	원유 기반 주도	69.7% → 66.5%
파라자일렌	19.9%	원유 기반 주도	93.3% → 83.3%

자료: 隆众资讯, 奥开证券研究院.

■ **교통운송산업은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났으며, 특히 도로 운송과 항공 운송의 충격이 두드러짐.**<sup>17)</sup>

- 도로 운송과 항공 운송은 연료비 비중이 높아 유가 상승이 수익성을 직접 훼손하며, 도로 운송의 경우 연료비가 총비용의 약 30%를 차지하고, 장거리 간선 운송에서는 48~50%까지 올라가며, 항공 운송의 경우 연료비 비중이 약 30% 수준으로, 2025년 중국 3대 항공사의 평균 비중은 31.9%였음.
- 도로 운송과 항공 운송은 비용 전가가 원활하지 않아 운임 인상 여력이 제한
  - 도로 운송은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해 가격 협상력이 약하므로 상승한 비용을 화주나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우며, 항공 운송은 시장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수요 탄력성이 크고, 중국 철도망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해 유류할증료 인상에도 한계가 존재
  - 중국민항대학 항공경제발전연구소(中国民航大学航空经济与发展研究所)의 리샤오진(李晓津) 소장은 항공유 비용이 중국 국내 항공사의 총비용 중 약 30~35%를 차지하며, 추산에 따르면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의 비용은 각각 약 25억 위안, 21억 8천만 위안, 52억 5천만 위안 증가한다고 설명
- 철도 운송은 전력 기반 운송 비중이 높아 유가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는데다 유가 상승 시 도로·항공 일부 수요가 철도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
  - 2024년 말 기준 중국 전국 철도 전철화율은 75.8%에 달했으며, 실제로 2011년 유가가 38.1% 상승했을 당시 중국 A주 철도 운송 업종의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4.0% 증가한 바 있음.

■ **높은 천연가스 해외 의존도로 인해 중국의 가스 공급 산업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sup>18)</sup>

17) 「霍尔木兹海峡封锁消息推高油价, 港股航空股普跌」(2026. 4. 13.), 『21世纪经济报道』.

- 중국 국가통계국 및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620억 6천만 m<sup>3</sup>였고, 수입 천연가스(파이프라인 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포함)는 1,764억 5천만m<sup>3</sup>로 집계되었으며, 총 공급량 4,385억 1천만m<sup>3</sup> 가운데 수입 비중은 40.2%
- LNG의 6.3%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운송되고, 주된 공급국은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양국의 LNG 공급 차질을 야기하며, 실제로 중국 LNG 시장가격(4월 24일 기준)이 전쟁 이전 대비 52.8% 상승함.
-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가 일부 공백을 메울 수는 있으나,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중국 가스 공급업계의 비용 부담 확대는 불가피
- 계절적 수요를 고려하면 4/4분기는 통상 LNG 수입이 집중되는 시기로, 고가의 가스 가격이 겨울 난방 시즌까지 지속될 경우, 가스 기업들이 받는 충격은 커질 것

### 3. 중국의 대응 전략

#### 가. 에너지 안보 측면

- 원유 수입국 다변화와 육상 운송망 확대를 통해 중동 지역에 대한 원유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며,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능력 제고<sup>19)</sup>
- 중국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로부터의 원유 수입 비중을 확대하는 등 수입국 다변화 전략을 통해 중동 의존 축소<sup>20)</sup>
- 2025년 기준 중국의 원유 수입 총량은 5억 7,773만 톤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으며 대외 수입 의존도는 약 70~72%
- 중국의 수입국별 비중을 살펴보면, 1위 러시아 약 19%(1억 톤), 2위 사우디아라비아 약 14%(7,800만 톤), 3위 이란 약 13%(6,900만 톤), 4위 이라크 약 11%(6,400만 톤) 순서(그림 5 참고)
- 중동 지역 전체가 중국 원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이며,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약 14%, 이란 약 13%, 이라크 약 11%, UAE 약 6.4%, 오만 약 6.1%, 쿠웨이트 약 3.3%, 카타르 약 1.3%(그림 6 참고)
- 해상 운송 외에도 중-러 송유관(연 1,500만 톤), 중-카자흐 송유관(연 2,000만 톤), 중-미얀마 송유관(연 1,300만 톤) 등 육상 경로를 통한 원유·천연가스 수입 확대
- 2025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경유(중-카자흐 송유관)를 통해 중국에 250만 톤의 원유 추가 공급을

18) 「油价破百之后:通胀,出口,产业链,中国如何扬长避短」(2026. 4. 7.), 『界面新闻』.

19) 「全球油路受阻,考验中国能源韧性」(2026. 4. 4.), 『中国能源报』.

20) 「中东战火引发油价“过山车”,中国如何抵御外部风险?」(2026. 3. 12.), 『界面新闻』.

- 승인했으며, 현재 파이프라인 수입은 중국 전체 수입량의 약 8~10% 차지
- 중국 수입 천연가스 수입 중 약 6%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며, 절반은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

그림 5. 중국 원유 수입국 분포(상위 4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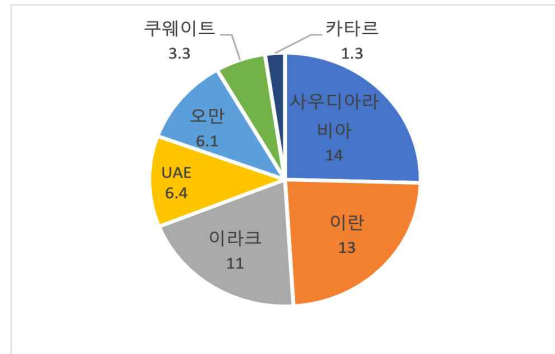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그림 6. 중국의 중동 지역 내 원유 수입국 분포

(단위: %)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 중국의 전략 비축유와 상업용 석유 재고 총량은 약 12억~14억 배럴이며,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중국은 국내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 투자를 지속 확대<sup>21)</sup>

- 2025년 중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84.4%에 달했으며, 2026년에는 84.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석유 수입 의존도는 70%에 달하는 반면, 석탄·천연가스·수력·원자력·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전체 에너지 자급률은 약 84% 수준
- 약 12억~14억 배럴의 전략 석유 비축량은 중국 전국 일평균 소비량 1,500만 배럴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외부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더라도 약 3개월 동안 중국 경제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규모<sup>22)</sup>
- 중국정부는 2017년 ‘석유·가스 체제개혁 의견’을 통해 민간 등 자격을 갖춘 시장 주체의 석유·가스 탐사·채굴 참여를 허용하며 경쟁 확대와 생산성 제고를 추진했으며, 2019년에는 자연자원부가 ‘광산 자원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국영기업이 독점해온 석유·가스 탐사·채굴 시장을 전면 개방함.

■ 중국은 석유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기 기반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가속화<sup>23)</sup>

- 중국은 석탄화학, 전기차,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축적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고유가 환경에서 다수 국가보다 더 많은 대체 선택지를 보유

21) 「全球能源遭遇史上最大规模供应中断,中国靠什么“扛住”了?」(2026. 4. 15.), 『上观新闻』.

22) 「超七成石油靠进口,中国凭啥能不慌?」(2026. 4. 25.), 『红网』.

23) 「美以伊战事下中国能源体系、汽车及储能产业怎么走?惠誉评级给出核心判断」(2026. 4. 21.), 『证券时报』.

- 중국은 세계 태양광 패널 공급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중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전체 발전 설비의 약 60%(23억 4천만kW)를 차지
- 중국은 2030년 탄소 피크(탄소배출 정점)와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제조업 전반에 걸친 친환경 공정 도입을 가속화
  - 향후 5년간 GDP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총 17% 감축한다는 계획 발표<sup>24)</sup>
  - 2026년 감축 목표는 3.8%로 설정됐으며, 에너지 믹스 내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약 21.7%에서 2030년까지 25%로 확대할 예정
  - 중국의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5%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력 중심 소비 구조를 강화하고자 하며, 이는 단순한 탄소중립 정책을 넘어 외부 충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안보 전략으로도 해석됨.
- 이란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과 유가 급등이 소비자들의 전기차 전환을 강하게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에서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보급 및 수출 가속화
  - '2021~2035년 신에너지 차량(NEV) 산업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중국은 2035년까지 신에너지차(NEV) 핵심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 NEV 신차 판매량에서 순수전기차(BEV) 점유율 확대, 공공 부문 100% 전기차로 전환, 수소연료전기차(FCEV) 상업화, 수소연료공급시스템 확대 등을 제시<sup>25)</sup>
  - 신차 판매 기준 중국 신에너지차(NEV)의 내수 보급률은 2020년 5.4%에서 2024년 40.9%로 급증하였으며, 2030년까지 중국 내 신에너지차 보급률은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중국은 2025년에 전년대비 30% 증가한 832만 대의 차량을 수출했는데 이 중 전기차가 전년대비 38% 증가한 232만 대
- 중국은 수입 석유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수년간 석탄화학 산업을 확대 및 발전시키며 일부 원유 수요 대체
  - 중국은 단순한 비용 절감뿐 아니라 수입 석유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해 석탄공급 발전을 확대해 왔으며, 이란 전쟁 원유 차질로 인한 석탄화학 수요 증가로 기존 시설의 현대화 가속화
    - 지난 1월 중국정부는 석탄을 활용해 올레핀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36건을 승인한 바 있으며, 산시성과 내몽골 등 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에 주요 공장을 집중 배치
  - 중국은 화학공업 분야에서 석탄으로 석유를 대체해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체계를 이미 구축했고, 질소비료의 약 80%가 석탄을 원료로 생산되며, 관련 기술과 설비 역시 국산화됨.
    - 중동 긴장이 고조된 이후 국제 요소(Urea) 가격은 40% 이상 상승했지만, 석탄화학 생산능력의 뒷받침으로 인해 중국 국내 요소 가격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

24) 「从17%看降碳决心和信心 | “十五五”新图景中的能源电力新作为系列观察之一」(2026. 4. 3.), 『国家电网报』.

25)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2021—2035年)的通知」(2020. 10. 20.), 『中国政府网』.

## 나. 거시경제 정책

■ 중등 사태에 따른 경제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선제적인 재정 확대 기초를 유지하는 한편 통화정책은 완화정책 시행에 있어 신중한 기초를 유지<sup>26)</sup>

- 재정투입 강화 기초 아래 2/4분기 중 재정자금 집행 규모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채권 발행 역시 대체로 3/4분기 말 이전에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채권의 조기 발행은 자금이 실물 투자로 전환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4월 28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전의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정부업무보고에 포함됐던 ‘지급준 율 인하와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표현이 제외된 점을 고려할 때,<sup>27)</sup> 중국의 단기 통화완화 가능성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sup>28)</sup>
- 성장률·물가·금융시장 지표의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유지 및 미국 국채금리 인하 지연 등은 중국의 단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한함.
  - 2026년 1/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대체로 4.5% 수준의 정책목표 하한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지정학적 변수와 반내권(反内卷) 정책, 내·외수 회복세 등으로 물가가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질금리 하락 효과가 나타날 전망
- 중등 사태로 경기 둔화 압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유동성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금융시장 부담도 크지 않아,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필요성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
  - 단기 자금금리(DR001)는 7일물 공개시장조작(OMO) 정책금리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금융시장 내 유동성 부족 현상은 뚜렷하지 않음.
  - 2/4분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만기 부담이 크지 않아 중장기 유동성 공백 역시 제한적인 상황
  - 과거 고금리 정기예금의 만기 재조정으로 은행 조달비용과 순이자마진(NIM) 부담이 완화되면서,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한 은행 수익성 방어 필요성도 약화

■ 금융 안정 측면에서 중국은 자국 통화 결제를 확대하고, 국경 간 위안화 결제시스템(CIPS)을 활용해 국제은행 간통신협회(SWIFT) 의존도 감소<sup>29)</sup>

26) 「宏观解读 | 外部扰动加剧, 资产避险为先——2026年二季度宏观策略展望」(2026. 4. 10.), 『新浪财经』.

27) 「央行: 今年将灵活高效运用降准降息等多种货币政策工具」(2026. 3. 7.), 『中国政府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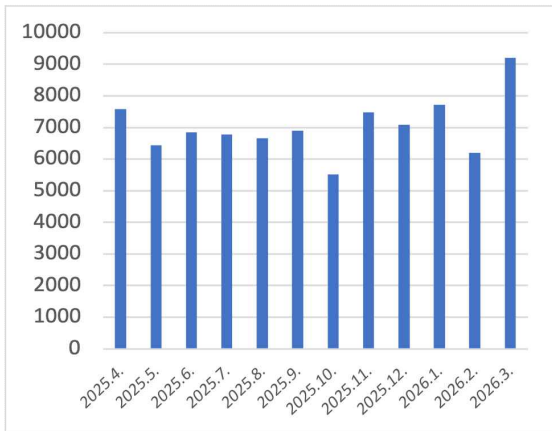
28) 「聚焦政治局会议! 货币政策着重精准有效, 降准降息可能延后」(2026. 4. 29.), 『华夏时报』.

29) 「石油数字人民币崛起, 脱离SWIFT成为全球新支付路径」(2026. 4. 7.), 『新浪财经』.

- 중국은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해 이란 및 러시아 등과 CIPS를 활용하며 SWIFT망을 우회해 왔으며, 이번 전쟁을 계기로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에서 위안화가 필수 결제 수단으로 부상
-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CIPS를 통한 일평균 거래액수는 2월 6,197억 4천만 위안(약 134조 4천억 원)에서 3월 9,204억 5천만 위안(약 199조 6천억 원)으로 48.5% 급증(그림 7 참고)
  - 일평균 처리 건수도 2월 2만 5,930건에서 3월 3만 5,740건으로 증가했으며, 산유국과 중국 간 원유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도 다소 증가
- 중국은 2018년 3월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거래를 도입하며 세계 원유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러시아·이란 등 미국 금융 제재 대상국으로부터 원유 수입 시 대부분 위안화로 결제해 옴.
- 국제 원유 거래에서 사용되는 주요 결제통화를 보면, 미국 달러(USD)는 러-우 전쟁과 최근 이란 전쟁 이후 일부 비중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80% 이상을 차지하며, 중국 위안화(CNY)는 약 5~10% 수준으로 추정되나 위안화 결제 확대에 따라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그림 8 참고)

그림 7. CIPS 일평균 거래액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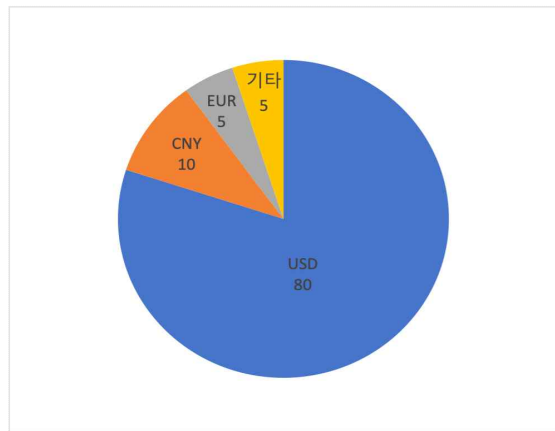
(단위: 억 위안)



자료: 上海証券報.

그림 8. 통화별 원유 거래 결제 비중 추정치

(단위: %)



자료: SWIFT, CIPS, ECB.

■ 중국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 장기화에 대비해 원유 수출 제한, 에너지 소비 억제, 에너지 구조 전환을 모색 중<sup>30)</sup>

- 중국은 전략 비축유 보호와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3월 초부터 정유업체들에 신규 수출계약 증단을 지시하였으며, 휘발유·디젤·항공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에너지 수출 제한
  - 소매 휘발유 가격은 약 10% 인상해 상승분의 일부만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나머지 부담은 정유사가 흡수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물가 상승을 억제

30) 「关于更高水平更高质量做好节能降碳工作的意见」(2026. 4. 22.),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

- 중국은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업무 수행을 위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억제와 산업·에너지 구조 전환을 추진
  - 석탄·석유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비화석 에너지를 확대하고 신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며, 산업 분야에서는 철강·석유화학·전자재 등 고에너지 소비 업종에 대한 효율 개선과 구조조정을 강화
  -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고에너지 소비 제품 수출 관리,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감축 유도, 산업별 차등 전기요금과 시간대별 요금제 강화
  - 고에너지 소비·고배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탄소배출 대체 방안을 의무화하고 목표 달성이 미흡한 지역에는 프로젝트 승인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하며, 주요 기업에 대한 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 보고·감사 강화

## 다. 산업별 대응책

### ■ 중국정부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비용 상승에 대응해 산업별로 차별화된 조정 대책을 추진<sup>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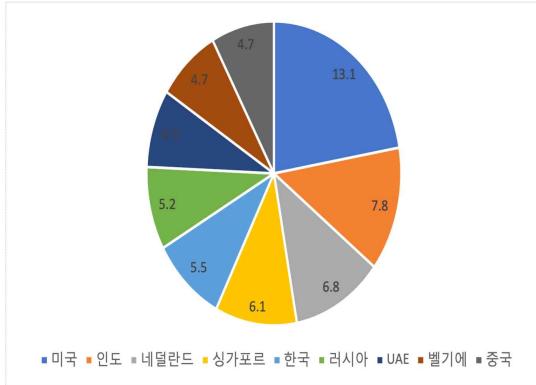
-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국 정유사들에 정제유 수출 선적 중단과 정제유를 포함한 모든 석유 제품의 수출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sup>32)</sup>
  - 페트로차이나·중국석유화학그룹(시노펙)·중국해양석유·중국중화그룹(시노켄) 등 국유 에너지 기업과 민간 정유사인 저장석유화학 등 정유업체들은 디젤·휘발유·항공유 수출 쿼터를 220만 톤에서 65만 톤으로 대폭 줄여 내수 공급을 우선 확보
  - 중국의 정제유 수출 품목 비중을 살펴보면 등유가 약 38%로 가장 높으며 경유 약 14%, 휘발유 약 11%(그림 10 참고)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국 최대 정유사에 신규 계약 체결을 중단하고 기체결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협상하라고 지시
  - 중국은 세계적인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생산물 대부분이 내수에 사용돼 정제유 수출 비중은 4.7% 수준에 그쳐, 정제유 수출 중단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그림 9 참고)
- 중국 항공 산업은 유류할증료 인상, 노선 축소 등으로 비용 절감
  - 중국국제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4월 5일부터 국내선 여객 운송에 800km 이하 노선은 승객 1인당 60위안, 800km 초과 노선은 120위안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으며, 조정 이전과 비교하면 단거리 노선은 5배, 장거리 노선은 편도 기준 100위안 인상

31) 「2026年3月12日中国发改委暂停2026年3月汽油、柴油和航空燃料成品油出口」(2026. 4. 15.), 『东方财富网』.

32) 외신 보도에 따르면 5월부터 수출이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됨. 「中方叫停3月成品油出口, 原因很简单」(2026. 3. 16.), 『新浪财经』; 「China poised to restart exporting jet fuel, diesel and gasoline」(2026. 4. 28.), 『Financial Times』.

그림 9. 정제유 주요 수출국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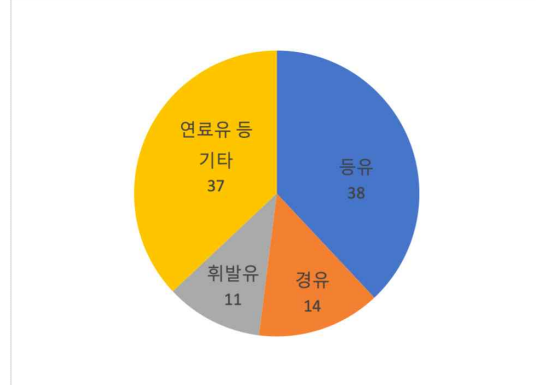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그림 10. 중국 정제유 수출 품목 구조 비중 (2025년)

(단위: %)



자료: 华经产业研究院.

## 4. 평가 및 전망

■ 중동 사태가 중국 경제와 공급망에 미친 충격은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주요국들에 비해 피해 수준이 양호

- 단기적으로는 △ 에너지 비용 상승, △ 글로벌 교역량 감소, △ 외부 수요 둔화,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이 있지만, 중국은 낮은 인플레이션, 충분한 전략 비축유, 과거보다 낮아진 외부 에너지 의존도,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수준
- 중국인허증권(中国银河证券)은 유가가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미치는 탄력성은 약 1~2%,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약 5~6%이며, 올해 평균 유가가 배럴당 85~100달러라면 CPI는 1.5% 이하, 120달러를 넘어서면 CPI가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중국금융40인포럼(CF40)은 2026년 1/4분기 거시정책 보고서에서는 중국 수출기업들은 비교적 강한 적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 신에너지차 보급률 상승, 석탄 생산능력의 유연한 보완 역할까지 더해져 중국 경제는 유가 충격에 대해 일정한 면역력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sup>33)</sup>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中国社会科学院世界经济与政治研究所) 장빈(张斌) 부소장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충돌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하며 선진국과 비교할 때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낮은 편이며, 유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경기 대

33) 「一季度经济温和复苏 仍需呵护内生增长动力」(2026. 4. 27.), 『新浪财经』.

응 정책 여력도 더 충분하다고 설명<sup>34)</sup>

■ 단기적으로는 해외 수요와 공급 여건,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여부가 중국 수출의 핵심 변수이며, 전 세계적 탈석유 전환 추세가 중국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 가능<sup>35)</sup>

- 중동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 연료 공급 부족,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는 각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충, 전기차 확산, 산업·교통 전반의 전기화 추진으로 이어지는 추세
- 중국은 태양광·풍력·전기차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25년 사이 생산량 기준으로 전기차는 240%, 태양광 전지는 340%, 발전설비는 1,080% 증가
- 중국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 위안화 국제화, 공급망 자립, 육상 운송망 구축을 가속화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 가능
- 중동 사태를 통해 중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의 구조적 취약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는 에너지 수입 다변화, 전략비축 확대, 위안화 결제 확대, 신재생에너지·전기차·에너지 저장 산업 육성의 가속화 촉진

■ 약 84% 이상의 에너지 자급률과 지속적인 에너지 구조 개혁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외부 충격에 '민감'하지만 결코 '취약'하지 않다는 평가<sup>36)</sup>

- 최근 중국은 에너지 분야의 투자·개혁을 가속화하며 에너지 혁명과 에너지 강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종합 에너지 자급률이 84%를 상회하고 에너지 소비 증가분의 90%는 국내 공급으로 충당되는 구조
- 지난해 10월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서는 '에너지 강국'이 공식 목표로 제시되었으며, 중국정부는 향후 5년간 에너지 소비 증가분의 약 70%를 비화석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요구
- 중국은 현재 세계 7위 산유국이자 4위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원유 생산은 매년 400만 톤, 천연가스 생산은 매년 100억㎥ 규모의 순증세를 지속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비화석에너지 비중은 전년대비 약 2%포인트 상승해 석유를 제치고 두 번째로 큰 에너지원으로 부상했으며, 신규 에너지 수요 증가를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 경제 및 정치연구소(中国社会科学院世界经济与政治研究所)의 랴오판(廖凡) 소장은 중국이 공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전략 배치 덕분에 중동 사태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이번 사태가 중국 에너지 공급에 주는 함의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
- 미국의 '경제적 분노 작전(Operation Economic Fury)'의 일환으로 부과된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

34) 「美以伊冲突对中国经济的影响可控」(2026. 4. 27.), 『中国新闻网』.

35) 「中东冲突冲击油价, 中国出口能否化危为机?」(2026. 4. 1.), 『界面新闻』.

36) 「美以伊战争撬动全球能源版图, 中国能源安全“敏感”但远非“脆弱”」(2026. 4. 15.), 『澎湃新闻』.

- 재로 인해 이란으로부터 중국의 저가 원유 수입 차질은 지속될 전망이다<sup>37)</sup>
- 중국의 화학공업 분야에서는 석유화학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대체 불가능하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남아 있음. **KIEP**

자료 정리: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후보생 김수림  
(sulim28@stu.pku.edu.cn)

---

37) "China's heavy reliance on Iranian oil imports"(2026. 3. 20.), *Reuters*.